

정읍 산외면 '상습 침수' 걱정 끝

동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동곡천·교량 재가설 5개소 정비 용두·동곡마을 침수 예방 등 기대

정읍시는 산외면 상습 침수지역의 수해환경을 개선을 위한 '동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산외면 동곡리 일원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비가 올 때마다 지방하천인 동곡천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범람과 배수 불량으로 저지대 가옥, 농경지, 도로의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동곡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해 냈다.

이후 지역 주민과 편입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전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에는 국비 74억원을 포함 총 1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동곡천 1.67km 및 교량재가설 5개소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시가 상습 침수피해를 막고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산외면 '동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를 통해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용두마을과 동곡마을의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도로 위 차량의 통행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동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

구 정비사업을 통해 동곡천 일원 주민들의 침수 피해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멜론 농사 2년만에 전국 최고가 낙찰 '금손 청년농'

2년 전 고창 정착 백규남씨 멜론 8kg 1박스 5만2000원 올 최고 경매가... 현장 컨설팅 도움

멜론농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된 전북자치도 고창군 청년농업인이 재배한 멜론이 전국 최고가에 낙찰되며 화제를 모았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가락시장 멜론 경매에서 청년농업인 박규남씨(고창읍·38)가 생산한 멜론이 전국 최고 가격에 낙찰됐다. 박씨는 이날 첫 경매가 4수 8kg 1박스 기준으로 최고가 5만2000원을 기록하며 올 8월 출하된 멜론 중 최고 경매가를 기록했다.

박씨는 경기도 안산에서 거주하다 2022년 고창군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대상자로 선정돼 고창으로 전입했다.

박규남씨는 "연고도 없이 홀로 농업을 하다 보니 재배기술의 미흡으로 막막했는데 재배하고 있는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배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늘려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 멜론은 미네랄과 원적외선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되며 안정된 재배기술과 많은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다. 또 과즙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 직거래 재구매율이 80%가 넘는 농가도 있을 정도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초기진입하는 청년농업인



고창군 청년창업농 백규남씨가 재배한 멜론.

들의 재배기술 습득을 위해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품목별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의 청년농업인 현장 실습컨설팅의 결과로 청년들의 재배기술이 상당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다.

현행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매년 고창

에 진입하는 청년농업경영인들의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 고무적이다"며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창업농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농업 서류 간소화' 만족도 93%

군민 "불편함 크게 개선"...군 "보조사업 전 분야로 확대"

고창군이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업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행정서비스'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지난달부터 한 달간 군민 1400명을 대상으로 '농업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군민 93% 이상이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응답 내용 중에는 "사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했지만 최종 선정되지 못하면서 허탈감이 컸는데, 서류 간소화로 상심감이 다소 줄어들었다", "바쁜 영농철 복잡하고 방대한 구비서류로 인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등의 의견이 다수였다.

이와 함께 ▲태블릿PC를 활용한 신청서류 전자화 ▲서류간소화 행정서비스 시행범위 확대 등 다

양한 의견이 나왔다.

'농업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행정서비스'는 관례적으로 제출했던 보조사업 포기각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을 생략했다.

행정전산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사업부서에서 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을 활용해 자체 확인하는 등 불필요한 민원인 제출서류를 줄임으로써 업무 처리속도 역시 눈에 띄게 빨라졌다.

군은 현재 농업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간소화 제도를 행정 보조사업 전 분야로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농업인과 사업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공공어린이집 민간위탁 등 11건 심의

정읍시의회 임시회 5일까지 임시회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30일 제29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5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1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정된 주요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시 공립어린이집 (교외어린이집 등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정읍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정문희광마을 웰빙체험타운 민간(재)위탁 동의안 ▲정읍시

힐링푸드센터(Healing Food Center)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 동의안 건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승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12년 전통의 태인시장, 태인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했으며 서향경 의원은 '정읍시는 효율적인 도로 굴착 공사로 시민의 일상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상길 의원은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한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 촉구'를 건의했다.

이도형 의원은 현재 조성 중인 정읍시 종합경기장 본부석 설계의 잘못을 지적하며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활동은 정읍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김병중미술관, 재활용 '굿즈' 개발

전시 후 버려지는 배너 등 활용 키링 등 10종 제작 '탄소중립' 실천

남원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에서 전시 후 버려지는 배너와 플래카드 등을 활용해 미술관 문화상품을 개발했다.

미술관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아트상품을 제작하기 위해 홍보에 필요한 배너와 플래카드를 친환경 소재인 타이벡(Tyvek)으로 제작해 이를 재활용하는 미술관 문화상품을 기획했다며 9월부터는 굿즈형태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반 문화상품으로는 키링, 손목가방, 런치백 등 10종이며 판매는 시립김병중미술관과 미술관 '풍' 교육동 1층에서 구매할 수 있다.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문화상품의 개발과 판매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전시 후 버려지는 배너와 플래카드 등을 재활용해 만든 굿즈 상품 손잡이 가방.

미술관 운영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